

두발자유 선언

오늘 우리는 인권에는 타협이란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과거 일제 식민 통치하에서 시작된 단발령이 일제가 물러간 지 반세기도 지난 오늘날까지, 왜 유독 학교에만 남아 있는 것인가?

잘려나가는 것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다. 실제 두발 규제의 피해자는 학생인데 왜 교사, 학부모 다수가 원한다는 이유로 우리의 인권을 함부로 잘라버리는가. 인권은 다수 의견이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제한될 수 없다. 우리에게도 우리 몸을 관리할 권리가 있다.

획일적인 '학생다움'을 강제하는 두발규정은 몇몇 어른들의 취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다. 두발규제는 입시경쟁체제에 학생들을 순종시키기 위한 대표적 통제수단일 뿐이다. 우리가 두발규제를 통해 배우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다.

우리는 머리 모양, 색깔, 길이로 인격을 재단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학생들의 존엄성이 잘려나가지 않는 학교를 원한다. 정부는 바로 지금, 두발자유를 보장하라! 우리는 두발규제가 없어질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6년 5월 14일, 참가자 일동

5.14 청소년인권행동의날

청소년 인권 찾기 선언

청소년도 인간이다.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다. 특히 많은 청소년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는 우리가 자유롭게 숨 쉬며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의 현실은 어떤가. 학생들은 학교의 인형이 아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청소년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선언을 외친다.

하나, 두발규제는 그 자체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바로 지금, 두발자유를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맞지 않고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 모든 체벌은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 폭력을 통한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이에 우리는 체벌의 완전한 폐지를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종교를 믿고 싶다. 그리고 종교를 갖고 싶지 않은 친구들도 많다. 종교사학재단이 요구하는 강제 종교수업의 금지를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우리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집회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우리는 입시기계가 아니다. 하지만 학교는 0교시, 강제야자와 보충, 하루 15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입시공부를 요구하고 있고, 교육부도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등수 경쟁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을 사지로 내모는 경쟁교육을 중단해야 한다.

하나,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의 의견은 언제나 찬밥신세다. 교육부는 유명무실해진 학생들의 자치기구인 학생회를 법으로 보장하고 권한을 강화하여 학교를 민주화시켜야 한다.

하나, 실업계 학생들에 대한 교육부의 무관심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하고 있다. 부실한 교육과 현장실습현장에서의 노동력 착취, 그리고 사회적 무시 등이 실업계 학생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 교육부는 실업계 교육을 정상화하여 실업계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바로 지금, 학생의 인권을 짓밟는 교육, 입시위주의 교육은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학교, 친구를 친구라 부를 수 있는 학교를 원한다. 오늘 "청소년 인권 행동의 날, 두발 자유 바로 지금!" 행사는 청소년의 힘으로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얻어내기 위한 작지만 큰 시작이 될 것이다.

2006년 5월 14일, 참가자 일동

5.14 청소년인권행동의날

집회 참석을 이유로 학교에서 징계, 체벌 및 기타 불이익을 받을 경우...

4월 19일, 교육부에서는 전국의 교육청 장학사들을 불러놓고 청소년들의 학내시위나 교외 집회 참가를 이유로 징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침을 전달했어요. 한마디로 5.14 행사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징계를 주면 교육청에서 혼내준다는 말씀.

그렇지만 꼭 이런 지침을 콧등으로 흘리는 학교가 있지요. 참나, 학생들과 손잡고 5.14 행사에 같이 오겠다는 생활부장 선생님도 있는 세상인데 말이예요.

우리 학교 학생부장(생활부장) 출동이

걱정되는 친구들을 위해 아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 5.14 행사가 끝난 뒤 '신고계시판'과 '신고전화'(02-741-5363)를 운영합니다. 혹시라도 징계를 준 학교가 있으면, 혼내주려구요. 교육부 지침에도 어긋난 부당한 징계니까요. 이 경우엔 학교에 손해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시겠다면 지원해드리겠습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올해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합니다. 이 때 징계가 있었던 학교를 골라 혼을 내줄 수도 있습니다.

노래가사 바꿔부르기 - 꽃다지 : 주문

두발자유를 부르는 주문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x3)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되어야해
오늘 우리가 가는 학교가 더 아름다울 수 있게 (x3)

저들이 말하는 교육속에 우리들의 인권 없고
저들의 지도속에 우리들의 자유 없지(x2)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x3)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되어야해

청소년 인권 찾기 선언

청소년도 인간이다.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다. 특히 많은 청소년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는 우리가 자유롭게 숨 쉬며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의 현실은 어떤가. 학생들은 학교의 인형이 아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청소년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선언을 외친다.

하나, 두발규제는 그 자체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바로 지금, 두발자유를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맞지 않고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 모든 체벌은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 폭력을 통한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이에 우리는 체벌의 완전한 폐지를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종교를 믿고 싶다. 그리고 종교를 갖고 싶지 않은 친구들도 많다. 종교사학재단이 요구하는 강제 종교수업의 금지를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우리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집회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우리는 입시기계가 아니다. 하지만 학교는 0교시, 강제야자와 보충, 하루 15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입시공부를 요구하고 있고, 교육부도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등수 경쟁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을 사지로 내모는 경쟁교육을 중단해야 한다.

하나,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의 의견은 언제나 찬밥신세다. 교육부는 유명무실해진 학생들의 자치기구인 학생회를 법으로 보장하고 권한을 강화하여 학교를 민주화시켜야 한다.

하나, 실업계 학생들에 대한 교육부의 무관심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하고 있다. 부실한 교육과 현장실습현장에서의 노동력 착취, 그리고 사회적 무시 등이 실업계 학생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 교육부는 실업계 교육을 정상화하여 실업계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바로 지금, 학생의 인권을 짓밟는 교육, 입시위주의 교육은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학교, 친구를 친구라 부를 수 있는 학교를 원한다. 오늘 “청소년 인권 행동의 날, 두발 자유 바로 지금!” 행사는 청소년의 힘으로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얻어내기 위한 작지만 큰 시작이 될 것이다.

2006년 5월 14일

참가자 일동